

# 전주 대변혁 위한 시정 속도 낸다

### 우범기 시장, 실·국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시민과 약속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3~22일(2주간)까지 분청 실·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기존 일상적인 업무와 단순 집행 업무는 보고 대상에서 배제하고, 시 역점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각 부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주(13~22일)동안 분청 실·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보고는 해당 실·국 장이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 설명한 후 각 부서장이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이후 정점사항에 대해 함께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문제해결 방식에 초점을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개장을 앞둔 '완산빙커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원활한 개관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영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

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부족한 전주지역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탄소 국가산업단지의 후속으로 일반산업단지 조

성 계획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전주 기업반 운영 △청년 교통비 및 어학비 지원 △청년 수당 등 자립 기반 마련

을 위한 세심한 지원에 힘쓰고, 청년들의 소통과 지역 참여 활성화,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층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각 실·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업무 추진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지연 등이 없도록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 △업무처리 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것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중요하지만, 도로·인도, 정소·쓰레기 등 부분에도 시민들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등이다.

우범기 시장은 "2024년은 전주가 젊고 강한 도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침없이 대도약하는 대변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민오케스트라는 25일 저녁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회 창단연주회를 연다.

## '봄 향기 가득한 음악여행'

### 전주시민오케스트라, 25일 제2회 창단연주회 개최

전주시민과 전주시 공무원이 함께하는 지역 오케스트라 단체인 전주시민오케스트라(지휘자 김대현)는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봄 향기 가득한 음악여행'을 주제로 제2회 창단연주회를 연다.

지난 2021년 10월 창단한 전주시민오케스트라(JCO)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음악 단체로, 막스 루돌프(Max Rudolf)의 'The Grammar of Conducting'을 마스터한 음악감독 김대현 지휘자의 지도 아래 현재 40여 명의 단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따뜻하면서도 힘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다채로운 영화음악 10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한호수 전주시민오케스트라 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지도해주신 김대현 지휘자님과 각 지도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다"며 "지난 2년여 동안 직장과 현업 속에서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연습하며 열정을 다한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지휘자와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공연이 모두에게 따뜻한 위안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공연 정보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누리집(www.sori21.co.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집수리학교 수강생 모집

전주시는 올해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집수리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가정 내 간단한 집수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집수리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시민참여 집수리학교는 지난해(4회)보다 교육과정이 확대돼 일반 집수리 과정(3회)과 욕실 집수리 과정(1회), 신설된 주말 특강반(2회)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일반 집수리 과정 1회차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2주간 4일과정으로 진행되며, 시는 이번 1회차 교육에 참여할 총 30명의 수강생을 오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누리집(www.jhousewell.co.kr)을 통해 수강을 신청하면 되며, 교육 관련 사항은 전화(063-281-016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올해 '시민참여 집수리학교'의 일반 집수리 과정은 △공구 사용법 △건축 목공 기초 △생활 전기 △생활 도배를 주제로 진행된다. 또, 욕실 집수리 과정은 △욕실 배관 △세면대·수전 교체 △변형기 교체 △타일 보수 및 실리온 시공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욱기 기자

## 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시설 새단장 나선다

### 시, 어진박물관·강암서예관 전주공예품전시관 등 정비 진행

전주시는 문화관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어진박물관의 경우 지난해 증축 공사가 마무리돼 현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를 통해 기존 지하에 있던 어진 전시실이 지상으로 이전하고, 휴식 공간과 수유실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 기존 박물관 지하공간은 다목적 열린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 및 기획 전시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실 관람환경이 개선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보완된 새로운 어진박물관은 올 하반기 재개관 이후 만날 수 있다.

시는 어진박물관에 이어 강암서예관과 전주공예품전시관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개관한 강암서예관은 강암 송성용 선생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는 서예전시관으로, 시는 지하 수장고를 지상으로 옮겨 수장품들을 더욱



전주시는 올해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후화된 내부를 리모델링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람 편의를 제공기로 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의 경우에도 개방화장실과 노후화된 판매관 내부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또한 시는 올해 18억 원을 투자해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 21건을 보수 정비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재난방지사설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부터 총 9일간 주요 문화재 16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에 취약한 석축 및 배수시설, 건축물 균열, 처짐 등 문화재 안전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옥마을 내 야간경관 조명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로를 중심으로 침터와 실개천 등 오래되고 파손된 110여 개의 조명시설을 교체 및 신설함으로써 밝고 따뜻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행사에 참여해 즐기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5월 전주국제영화제, 8월 '가막축제' 등 다양한 행사 등 추진으로 대표 관광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월드컵골프장, 운영시간 확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불철 골프 성수기를 맞아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낮 시간대에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 골퍼 등이 새벽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라운딩 기회를 확대하는 것.

22일 공단에 따르면 월드컵골프장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첫 티오프(tee off) 시간을 오전 4시 41분, 마지막 티오프 시간을 오후 7시 30분으로 조정한다.

티오프 시간이 오전 5시 58분부터 오후 6시 33분까지인 동절기보다 운영시간이 2시간 14분 늘어났다.

티오프 97타에서 114타로 17타이 늘어 보다 많은 시민이 라운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월드컵골프장은 도심에 위치한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접근성이 좋을 뿐



전주월드컵골프장 클럽하우스.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아니라 이용료도 저렴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용료는 평일 2만9000원, 휴일 3만8000원이며, 전주시민은 할인 적용을 받아 평일 2만6000원, 휴일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도 전주시민과 같은 할인을 이 적용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